

기획시리즈 / 2009 캠페인 "Go! Green Logistics"-10

연료 바꾸기로 녹색물류 실천

-세방 : LNG 차량 전환 · RTGC 전기화 사례-



2009 연중 캠페인
"Go! Green Logistics"

후원업체

후원기관

농협물류

국토해양부

대한통운

국토해양부

물류기업이 보다 쉽게 녹색물류에 접근 할 수 있는 것은 '연료 바꾸기'다. 경유에서 친환경에너지원인 LNG나 전기, 태양열 등으로 바꿈으로써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저감할 수 있다. 더불어 효율이 높아 유류비 절감에도 효과가 크다. LNG차량은 경유의 70%, 전기 RTGC(Rubber Tired Gantry Crane, 고무바퀴형 야적장 크레인)는 10%의 수준이다.

세방도 녹색물류를 실현하기 위해 연료 바꾸기를 맨 처음 실천했다. 차량의 LNG전환과 RTGC 전기화를 통해 물류에 녹색을 입혔다.

연간 18억 원의 연료비 절감 기대

세방은 수출입컨테이너와 벌크화물의 하역, 운송, 보관 등을 해오고 있는 종합물류기업이다.

부산과 광양의 인터내셔널 컨테이너터미널과 대규모 컨테이너 야드 6개, 4개의 철도 컨테이너기지를 보유, 운영하고 있다.

부산인터내셔널컨테이너터미널(BICT)은 총면적 297,534㎡로 연간 135만 TEU의 물량 처리가 가능한 초현대식 컨테이너 터미널이다. 이곳에는 7대의 겐츨리 크레인(Gantry Crane)과 21대의 RTGC가 운영되고 있다. 세방은 경유로 운영되던 21대의 RTGC를 약 40억 원을 투자해 전기 연료로 바꾸는 개조 공사를 하고 있다. 세방이 상부와 하부 공사를 모두 책임지며 하부의 경우 추후 부산항만공사가 임대료 할인 등을 통해 투자비용을 되돌려 줄 예정이다.

총 면적 210,000㎡ 규모의 광양인터내셔널컨테이너터미널(GICT)은 연간 30만 TEU의 물량 처리가 가능하다. 이곳에도 10여대의 RTGC가 20억 원의 투자해 전기로 전환중이다. 광양항에서는 컨테이너부두공단이 하부공사를 맡는다.

이로써 세방은 RTGC의 연료를 전기로 바꾸는데 60억 원을 투자하게 되지만 연간 18억 원의 연료비를 절감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러한 세방의 녹색물류 움직임은 정부의 정책이 뒷받침 돼있다. 지난해 8월 국토부는 '항만 하역 분

야 에너지비용 절감대책'을 발표하고 그린항만의 등장을 앞당겼다. 먼저 기존에 경유를 사용하던 하역장비인 RTGC의 에너지 공급을 전기로 전환하는 사업을 진행했다. 부산항, 인천항, 광양항, 평택항 등 국내 주요 컨테이너항만의 RTGC 181대가 전기로 연료를 전환하고있다.

화주사 요청으로 LNG차량으로 전환

대표적인 국내 컨테이너 내륙운송업자인 세방은 213대의 트랙터와 1,068대의 트레일러를 보유하고 있다. 화주의 요청에 의해서 트랙터 중 일부가 LNG로 전환중이다. 세방의 화주사인 포스코로부터 2000년대식 현대자동차 트랙터에 한해 LNG 차량 전환 미션이 떨어졌다. 대당 2천만원의 비용도 지원됐다.

세방의 안병현 기획팀장은 "아직은 물류기업들이 녹색물류에서 다소 수동적인 모습을 취하고 있으나 향후 능동적인 모습으로 바뀔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지원금이나 보조금같은 실효성있는 정부지원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